



김민석 국무총리,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AZEC+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 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보조를 맞춰 나감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특히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운송 분야 관련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아울러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역내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단기적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에너지 구조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역내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등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간 정책 공조의 틀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 참석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정재상 (02-2100-2109)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예은 (02-2100-2132)

